

종교교육학연구 제41권. pp.121-144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 28.

종교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김귀성 · 류성민 · 고시용*

원광대학교 · 한신대학교 · 원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학교와 사회에서 실행 가능한 종교교육의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048명(학생 793명, 교사 255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와 11명의 종교교육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집담회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종교 교양교육은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정규 교과교육도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운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서는 중립학교에서 종교의식 등 비정규 교육활동에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이 매우 제한을 받는 편이다. 둘째, 종교교육 관련 교과서, 교사양성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실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교육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정비된 것마저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이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와 현실 간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조사연구 및 자문 결과에 의하면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성교육 및 창체 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선택폭의 개방, 시청각 매체의 접근 활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종교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종단, 학교, 교사, 학부모의 적절한 참여와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시민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양교육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각급 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양교육 및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접근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종교교육, 종교교양교육, 시민교육

* 김귀성(교신저자), 류성민(공동저자), 고시용(제1저자)

I. 서론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 종단, 정부, 사회 등 관련 주체 끼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문학적 또는 종교학적 종교교육 모형이나 종교 신앙적 종교교육을 주장하는 제안도 있었고 이 양자 간의 절충형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종교교육을 도덕교육이나 인성 교육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제안도 발견된다.¹⁾ 하지만 학교현장에 접근성이 제고된 가시화된 방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현장 및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종교교육의 구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교 현장과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종교교육의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난점과 그 원인 및 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분석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실행 가능한 종교교육의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계 중등학교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중립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교사의 종교교육 현상 및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응을 각각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및 유관학교 교사, 기관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 자문 등을 통하여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자 했다.

종교교육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종교교육에 앞서 국공립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우리의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명목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의 이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의 주된 가치는 “창의인성교육”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의 위상 정립 과제를 특정 주체에게만 전가하기에는 그 부담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이 진정 창의·인성교육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그 가능성을 열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종교교양교육 또는 인문학적 종교교육”은 그 중요성이나 본질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공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창의·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비단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위상이나 정체성 문제를 비롯하여 창의인성교육에 종교교육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조차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 논의가 없지 않을 것이다.

1)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38~139쪽에서는 인문학적 교양교육을 제안하고 있으며, 김종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14권 6호, 한국교육개발원, 1992에서는 종교교육의 도덕교육에 영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의 긍정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요구받고 있다.

II. 조사연구 설계 및 결과

1. 연구 목적

그동안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조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면 강돈구(2005), 김용관(2009)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자는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종교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²⁾ 후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율성 및 평준화 정책, 종교교육 운영실태,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 등의 3개 영역으로 조사한 결과이다.³⁾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의 종교교육 현황을 교과수업활동과 종교 관련 활동으로 나눠 반응을 확인해보고, 학생들의 가치선호도, 종교교육의 가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주안을 두고자 한다. 이런 진단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임과 동시에 중착점을 이루는 과업이자 인적 물적 자원 및 조건 정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인이다. 물론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 파악에는 학부모, 종단, 학생, 교사, 사회 등 관련 주체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및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의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의 직접 대상인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이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교양교육에 필요한 사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자 및 교사의 자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이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규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은 물론 이요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내용

학교에서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제작된 질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 두 가지로 각각 제작되었으며 그 하위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 질문지는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후 현장에 일차 조사(pilot study)를 거쳐 수정, 보완한 다음 현장조사에 적용되었다.

2)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참조.

3) 김용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참조.

〈표 1〉 질문지 내용 구성 내역

영역	문항/문항수	내용	대상
종교교육 참여 및 평가 (21)	1/1	종교관련 과목수업이나, 활동참여	학생/교사
	1.a/1	종교과목 및 활동의 명칭	
	1.b/14	교과목 및 활동에 대한 평가	
	4-1/1	학생들이 종교수업 및 활동에 대한 선호	
	4-2/1	학생들이 종교수업 및 활동에 대한 비선호 이유	
	7/3	종교수업 및 활동이 가장 도움이 됨 - 두 번째로 도움이 됨 - 세 번째로 도움이 됨	
삶의 주요 가치관(9)	2/9	인간의 삶에서 중요도	
학생에게 중요한 가치 (25)	3/3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 - 가장 중요한 가치 -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 - 세 번째로 중요한 가치	
	5/11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상	
	5/11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실제 수행 정도	
	6/3	- TV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 TV프로그램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 - TV프로그램에서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	
활성화 조건 (3)	8/3	- 가장 중요한 조건 -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 -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	

3.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분석 대상

조사대상의 표집은 1차로 전국의 종교계 중등학교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종교별, 지역별, 남녀별, 학교별로 구분하여 유층군집무선표집방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표집된 대상학교의 종교교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시하기 어려운 학교는 지역별, 종교별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을 실시 조사에 적용하였다.(학생 960, 교사 480, 합계 1440) 그러나 위의 표집 대상 중 개신교 종립학교의 학생 및 교사의 질문지 조사에 대한 응답이 도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외되었으며 실제 분석대상 표집수는 1,048부였다. 그 배경에는 종단 및 학교 현장의 제반 사정으로 의도한 바와 같은 질문지 조사 응답지가 답지되지 않아 조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조사대상의 구체적인 하위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구학적 분포

구 분		불 교	가톨릭	원불교	계
학생	지역별	수 도 권: 110 비수도권: 200	수 도 권: 135 비수도권: 128	수 도 권: 83 비수도권: 137	수 도 권: 328 비수도권: 465
	학교별	중 학 교: 158 고등학교: 152	중 학 교: 141 고등학교: 122	중 학 교: 106 고등학교: 104	중 학 교: 405 고등학교: 388
	성별	남 학 생: 166 여 학 생: 144	남 학 생: 108 여 학 생: 155	남 학 생: 88 여 학 생: 122	남 학 생: 362 여 학 생: 431
	계	310	263	220	793
교사	지역별	수 도 권: 37 비수도권: 44	수 도 권: 46 비수도권: 41	수 도 권: 35 비수도권: 52	수 도 권: 118 비수도권: 137
	학교별	중 학 교: 41 고등학교: 40	중 학 교: 38 고등학교: 49	중 학 교: 43 고등학교: 44	중학교 : 122 고등학교:133
	성별	남: 38 여: 43	남: 42 여: 45	남: 40 여: 47	남: 120 여: 135
	계	81	87	87	255
총 계		391	350	307	1,048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하나, 종교교생을 대상으로 표집한 표본 자료수집은 연구원들이 무선표집한 학교의 종교교사에게 요청하여 조사하되 사전에 해당 종교의 종교교사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 다음 자료수집에 착수하였다. 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은 종교계 중학교, 고등학교와 지역별 안배를 조건으로 무선표집하여 연구원들이 직접 전화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 매뉴얼에 따라 입력한 다음 SPSS V18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와 백분율기준으로 집단별(교사와 학생), 종립학교별, 중·고 학교 급별, 종교 관심도별 교차분석과 백분율의 차이 검증은 카이자승 χ^2 검증을 실시했다.

4. 조사결과

1) 종교교육 참여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수업 및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문항1)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약82.3%의 학생들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반응하였다.(〈표 3,4,5〉참조) 그러나 종교수업의 참여도는 대체로 낮은(28.3~42.9%) 반면 종교 관련 활동에 참여도는 높았다. 대체로 학생들의 경우 종교의식, 창체활동, 비정규 수업 등 순으로 종립

학교별로는 가톨릭, 원불교, 불교 종립학교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경우는 종교의식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치는 강돈구(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치로 보인다. 후자의 연구결과에서 시·도교육청별 선택과목 중 종교과목 운영 학교 수는 114개교(4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신교(51%), 가톨릭(24%), 불교(75%)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수과목 편성학교 수는 전체의 88개교(3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반 정도가 종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복수과목 편성운영은 실제로 그 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돈구(2005)의 학생들의 종교수업 참여도(27.23%) 및 정기의식 참여도(46.72%)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 참여의 선택이 보장되지 않은 의무참여(42.86%)에서도 본 조사연구에서의 결과(44.8%)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표 3〉 종교교육(수업, 활동)에 참여한 경험

응답 내용	학생	교사	전체
참여한 적이 있다.	653(82.3)	194(76.1)	847(80.8)
참여한 적이 없다.	140(17.3)	61(23.9)	201(19.2)
계	793(100)	255(100)	1048(100)
$\chi^2(df)$	4.889(1) $P < .27$		

〈표 4〉 종교수업의 참여 경험

응답 내용	학생	교사	전체
종교(불교)	279(42.9)	80(35.6)	359(41.0)
종교(가톨릭)	188(28.9)	74(32.9)	262(29.9)
종교(원불교)	184(28.3)	71(31.6)	255(29.1)
계	651(100)	225(100)	876(100)
$\chi^2(df)$	3.697(df 2) $P < .158$		

〈표 5〉 종교 관련 활동에 참여도

응답내용	학생	교사	전체
활동1(비정규 수업)	129(20.9)	11(4.9)	140(16.7)
활동2(특별프로그램)	36(5.8)	9(4.0)	45(19.2)
활동3(종교의식)	240(39.0)	175(78.5)	415(49.5)
활동4(창체활동)	149(24.2)	28(12.6)	177(21.2)
활동5(기타활동)	62(10.1)	0(0)	62(7.4)
계	616(100)	223(100)	839(100)
$\chi^2(df)$	110.773(df 4) $P < .00$		

2)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

종교수업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강제참여 방식, 종교 간의 차이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표 6〉 참조) 종교교육이 교과 수업이나 종교 관련 활동에 참여를 강제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이해된다. 종교교육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점으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데,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 순으로 반응하였다. 종교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비선호도와 비교해 보면 반반 정도로 나타났다.

〈표 6〉 종교교육(교과수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문항	학생					교사				
	1 E,Y	2 Y	3 반반	4 N	5 EN	1 E,Y	2 Y	3 반반	4 N	5 E,N
1. 수업/활동은 재미있었다	37 (5.7)	74 (11.4)	231 (35.5)	230 (35.4)	78 (12.0)	0	7 (3.1)	52 (23.0)	117 (51.8)	50 (22.1)
2. 과목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28 (4.3)	57 (8.8)	27 (42.8)	200 (30.8)	87 (13.4)	1 (.4)	3 (1.3)	47 (20.8)	105 (46.5)	70 (31.0)
3. 교재가 흥미 있게 써졌다	90 (13.8)	146 (22.5)	275 (42.3)	101 (15.5)	38 (5.8)	2 (.9)	18 (8.0)	84 (37.3)	94 (41.8)	27 (12.0)
4.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40 (6.2)	110 (16.9)	249 (38.3)	184 (28.3)	67 (10.3)	3 (1.3)	13 (5.8)	35 (15.5)	99 (43.8)	76 (33.6)
5. 재미도 없고 짜증스럽다	121 (18.6)	222 (34.2)	217 (33.4)	69 (10.6)	21 (3.2)	66 (29.2)	104 (46.0)	48 (21.2)	7 (3.1)	1 (.4)
6. 참여하고 싶지 않다	126 (19.4)	222 (34.2)	204 (31.4)	75 (11.5)	23 (3.5)	31 (13.7)	76 (33.6)	88 (38.9)	26 (11.5)	5 (2.2)
7.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편	43 (6.6)	132 (20.3)	291 (44.8)	135 (20.8)	49 (7.5)	4 (1.8)	17 (7.5)	87 (38.5)	97 (42.9)	21 (9.3)
8. 학교는 강제로 참여를 권함	134 (20.6)	157 (24.2)	194 (29.8)	103 (15.8)	62 (9.5)	69 (30.5)	65 (28.8)	58 (25.7)	26 (11.5)	8 (3.5)
9. 강제로 하니깐 더 재미없다	156 (24.0)	204 (31.4)	172 (26.5)	82 (12.6)	36 (5.5)	77 (34.1)	62 (27.4)	68 (30.1)	16 (7.1)	3 (1.3)
10. 종교적 신념의 강요가 싫다	132 (20.3)	173 (26.6)	199 (30.6)	93 (14.3)	53 (8.2)	55 (24.3)	62 (27.4)	56 (24.8)	49 (21.7)	4 (1.8)
11.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는다	256 (39.4)	233 (35.8)	117 (18.0)	29 (4.5)	15 (2.3)	112 (49.6)	64 (28.3)	43 (19.0)	6 (2.7)	1 (.4)
12. 이런 수업활동은 많을수록 좋다	66 (10.2)	143 (22.0)	270 (41.5)	115 (27.7)	56 (8.6)	3 (1.3)	20 (8.8)	114 (50.4)	65 (28.8)	24 (10.6)
13. 유사과목의 활동을 만들었으면 한다	76 (11.7)	170 (26.2)	255 (39.2)	99 (15.2)	50 (7.7)	8 (3.5)	35 (15.5)	107 (47.3)	54 (23.9)	22 (9.7)
14. 내 종교와 달라 제 미가 없다	209 (32.2)	198 (30.5)	165 (25.4)	49 (7.5)	29 (4.5)	90 (39.8)	69 (30.5)	55 (24.3)	10 (4.2)	2 (.9)

* 학생 650/교사 226=876(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교사는 제외)

* 1. 56.598(4) p<.00 2. 83.754(4) p<.00 3. 106.506(4) p<.00
 4. 118.135(4) p<.00 5. 39.443(4) p<.00 6. 6.812(4) p<.146
 7. 56.699(4) p<.00 8. 19.237(4) p<.01 9. 19.334(4) p<.00
 10. 19.407(4) p<.00 11. 11.595(4) p<.00 12. 45.940(4) p<.00
 13. 30.505(4) p<.00 14. 11.439(4) p<.22

3)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 가치

인간의 삶에서 어느 가치가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좋은 친구, 훌륭한 인격, 따뜻한 사람 순으로 반응한 반면, 교사는 따뜻한 사람, 훌륭한 인격, 좋은 친구 순으로 반응하여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행복, 가족화목, 건강, 인격(인간성)을 교사는 인격(인간성), 행복, 건강 순으로 응답했다.(〈표 7〉 참조)

〈표 7〉 인간의 삶에서 필요도(중요도)

문항	학생					교사				
	1 (EN)	2 (N)	3	4 (Y)	5 (EY)	1 (EN)	2 (N)	3	4 (Y)	5 (EY)
1. 여러 종교에 대한 지식/상식	43 (5.4)	136 (17.2)	320 (42.4)	217 (27.4)	77 (9.7)	3 (1.2)	9 (3.5)	45 (17.6)	136 (53.3)	62 (24.3)
2. 종교를 갖는 것(신앙)	61 (7.7)	154 (19.4)	322 (40.6)	161 (20.3)	95 (12.0)	1 (.4)	12 (4.7)	41 (16.1)	107 (42.0)	94 (36.9)
3.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22 (2.8)	52 (6.6)	262 (33.0)	278 (35.1)	179 (22.6)	2 (.8)	7 (2.7)	36 (14.1)	105 (41.2)	105 (41.2)
4. 좋은 친구들	6 (.8)	6 (.8)	79 (10.0)	113 (14.2)	589 (74.3)	0 (.0)	1 (.4)	10 (3.9)	73 (28.6)	171 (67.1)
5. 사회적 성공	10 (1.3)	14 (1.8)	130 (16.4)	289 (36.4)	350 (44.1)	1 (.4)	14 (5.5)	49 (19.2)	142 (55.7)	49 (19.2)
6. 부자가 되는 것	18 (2.3)	52 (6.6)	222 (28.0)	258 (32.5)	243 (30.6)	7 (2.7)	23 (9.0)	82 (32.2)	113 (44.3)	30 (11.8)
7. 훌륭한 인격	4 (.5)	5 (.6)	89 (11.2)	160 (20.2)	535 (67.5)	0 (.0)	0 (.0)	9 (3.5)	63 (24.7)	183 (71.8)
8. 좋은 대학 나오는 것	35 (4.4)	84 (10.6)	218 (27.5)	228 (28.8)	228 (28.8)	7 (2.7)	35 (13.7)	78 (30.6)	115 (45.1)	20 (7.8)
9. 따뜻한 사람	7 (.9)	9 (1.1)	78 (9.8)	148 (18.7)	551 (69.5)	0 (.0)	1 (.4)	12 (4.7)	53 (20.8)	189 (74.1)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치 않다. 3. 반반이다. 4. 약간 중요 5. 매우 중요

* 교사:793/학생:255=1048

- | | | |
|---------------------|---------------------|--------------------|
| 1. 132.019(4) p<.00 | 2. 178.905(4) p<.00 | 3. 59.233(4) p<.00 |
| 4. 34.463(4) p<.00 | 5. 61.154(4) p<.00 | 6. 36.931(4) p<.00 |
| 7. 17.489(4) p<.00 | 8. 55.062(4) p<.00 | 9. 10.320(4) p<.03 |

4)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배경

학생과 교사 공히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이어서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강요가 싫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종교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사회문화적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종교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8〉 학교에서 종교수업 및 종교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배경

응답 내용	학생	교사	전체
내 종교와 달라서	80(15.0)	24(24.0)	104(17.0)
종교에 관심없음	61(31.0)	38(37.0)	199(32.0)
도움이 않됨	85(16.0)	12()	97(16.0)
내용이 재미없음	123(23.0)	13	136(22.0)
강요가 싫어서	65(13.0)	8	73(12.0)
희망하지 않음	5(1.0)	4	9(2.0)
교사변인	-	1	1(.1)
수업변인	1(.1)	-	1(.1)
제도변인	2(.1)	3	5(.1)
기타변인	12(3.0)	-	12(2.0)
계	534(100)	103(100)	637(100)

5) 종교교육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

“종교 수업이나 활동이 다양하다면”, 그리고 “종교 수업이나 활동이 유익하다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면” 적극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여 종교교육의 다양화, 실제적인 도움, 선택권 등이 중요 조건임을 확인하게 해준다.(〈표 9〉 참조)

〈표 9〉 종교교육을 적극 선택하기 위한 조건

반응 내용	학생	교사	전체
1. 종교 관련 교사가 도움을 준다면	59(7.4)	21(8.2)	80(7.6)
2. 종교 수업, 활동이 유익하면	128(16.1)	55(21.6)	183(17.5)
3. 종교 수업, 활동목표가 분명하면	60(7.6)	9(3.5)	69(6.6)
4. 종교 수업, 활동이 다양하면	210(26.5)	92(36.1)	302(28.8)
5. 종단이 후원을 해준다면	20(2.5)	4(1.6)	24(2.3)
6. 종단이 참여를 요구하면	6(.8)	2(.8)	14(1.3)
7. 종교교육이 입시에 도움되면	49(6.2)	13(5.1)	62(5.9)
8. 종교 교과서가 재미있으면	61(7.7)	9(3.5)	70(6.7)
9. 종교교육이 체험학습 중심이면	43(5.4)	13(5.1)	56(5.3)
10. 종교교육이 진로에 도움되면	46(5.8)	21(8.2)	67(6.4)
11.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3(.4)	1(.4)	4(.4)
12.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면	108(13.6)	15(5.9)	123(11.7)
계	793(100)	255(100)	1,048(100)
$\chi^2(df)$	32.181(11) P<.00		

6)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상과 실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으로는 “TV시청, 영화관람, 대화,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대화, TV시청, 영화관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TV프로그램으로는 “오락 예능, 영화, 드라마, 코미디”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11〉 참조) 이렇게 보면 종교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표 10〉 학생들의 선호대상(가)과 실제(나)

반응 내용	학생		교사	
	대체로 선호 (가)	실제 (나)	대체로 선호 (다)	실제 (라)
1. 게임	83.2	56.6	95.5	89.8
2. TV시청	96.6	79.7	98.1	89.0
3. 쇼핑	77.0	47.7	87.4	67.5
4. 독서	59.4	47.0	51.0	49.8
5. 여행	94.1	49.8	85.5	40.0
6. 운동	78.4	64.3	82.2	72.2
7. 대화	92.6	89.7	84.3	80.3
8. 노래/ 춤	77.6	57.6	93.8	79.2
9. 공부	38.0	48.8	37.7	55.7
10. 영화관람	95.7	74.2	97.6	74.1
11. 종교활동	46.4	39.4	53.7	49.4

〈표 11〉 가장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반응 내용	학생	교사	전체
1. 다큐	17(2.1)	2(.8)	19(1.8)
2. 드라마	145(18.3)	37(14.5)	182(17.4)
3. 영화	163(20.6)	13(5.1)	176(16.8)
4. 코미디	79(10.0)	29(11.4)	108(10.3)
5. 스포츠	53(6.7)	25(9.8)	78(7.4)
6. 뉴스	4(.5)	1(.4)	5(.5)
7. 시사	1(.1)	0(.0)	1(.1)
8. 오락/예능	328(41.1)	146(57.3)	474(45.2)
9. 교양	0(.0)	0(.)	0(.0)
10. 교육	3(.4)	2(.8)	5(.4)
계	793(100)	255(100)	1,048(100)
$\chi^2(df)$	45.712(8) P<.00		

7) 자유반응

질문지 내용 중 교사와 학생들의 자유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교과목, 종교 관련 활동, 선호의 배경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1] “이 학교에서 종교와 관련된 과목의 수업이나 활동(예: 미사, 예불, 동아리 등)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써주세요”(문항1b)

[응답] ①교과목 수업: 종교(불교, 가톨릭, 원불교) ②종교활동: 법회, 미사, 예배, 파라미타 불교부, 창재, 창의활동, 자연생태 식물, 수계식, 철학, 자율활동, 답돌이, 마음공부, 학생회 동아리, 건학의 시간, 신자교리, 활동 및 행사, 사목회, 전야제, 보은회, 원불교, 직원조회 예불 등으로 다양한 종교활동을 확인하게 해주고 있다.

[질문2] “학생은 이 학교에서 하는 종교와 관련된 수업이나 활동을 좋아 하나요?”(문항4 ②)②아니오, 좋아하지 않는다(좋아하지 않는 이유 모두 “√”로 체크해주세요)
“그 이유는? ⑥기타, 써주세요”에 대한 응답

[응답] 교사 변인 - 무엇인가 거리감이 있어 꺼려진다.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 선생님 때문에. 수업 변인 - 종교수업에 대한 몰이해, 내용은 좋지만 너무 졸립다. 나는 좋지만 다른 아이들이 싫어해서 수업분위기가 엉망이다,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음 수업내용은 좋은데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한 것 같다, 힘들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매일 글 쓰는 게 싫다, 모르겠는데 마음만 찾으려한다, 부담스러워 싫다, 강요로 활동하는 것이 싫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숙제를 내주어 스트레스를 준다, 숙제가 싫다, 마이크를 해서 시끄럽다. 내 종교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한다. 종교적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환생, 믿음, 구원 등) 입시 등 제도: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과목, 효율성이 없다, 입시과목이 아니므로.

[질문3]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또는 학생이 수학하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는?”

①불교 ②개신교(기독교) ③천주교 ④원불교 ⑤증산교 ⑥유교 ⑦대종교 ⑧천도교 ⑨기타 ⑩종교관련 없음에 대한 응답

[응답] ⑨기타 종교로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사이언토로지교 등으로 응답하여 실제로 학교 설립의 배경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성종교 외에 다양한 종교에 대한 반응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자유반응은 분석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부류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과목의 분류:

1분류: 비정규수업 - 신자학생의 교리수업(강좌), 교양과목(철학), 다른 과목 수업 등

2분류: 특별 프로그램 - 견학이념의 시간, 마음공부, 자연생태 식물 체험활동, 기타

3분류: 종교의식 - 법회, 미사 예배, 직원조회, 보은회, 사목회, 수계식 등

4분류: 창체활동 - 자율활동, 전야제, 창체, 학생회, 동아리, 기타

5분류: 기타

둘째, 종교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6분류: 희망하지 않음(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등)

7분류: 교사변인(교사가 싫어서 등)

8분류: 수업변인(수업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등)

9분류: 제도변인(비입시과목 성적미반영 등)

10분류: 기타

5. 전문가 자문 및 집담회 결과

전문가 집담회는 ①전화면담 ②방문면담 ③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하였다. 전화면담은 직접방문 또는 일정 계획에 따라 자문활동이 어려운 경우 시행되었고, 직접 방문은 일정계획이나 전화로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에 의해 이뤄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상호 중복되어 실시되기도 했다. 전문가에게 자문할 내용을 미리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면담 및 집담회를 수행하였다.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종교학 또는 종교교육 관련 학자군, 중등학교에서 직접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교사, 교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전문가 집담회 내역

자 문 위 원(신분)	자문 날짜	자문 내용	자문 방법
PSJ(교목) LHJ(교법사)	2012.08.17. 2012.08.22.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방문면담 전화면담
KSJ(가톨릭계 중등학교 교장) KJS(교육청 장학사) YHY(중등학교 교사) JWS, LMS, CMS, KHJ, SSJ(종교 교사)	2012.07.10. 2012.08.09. 2012.08.09. 2012.08.09.	인성교육 관련 자문 종교교과서 및 활성화방안	방문면담 방문면담 방문면담 집단면담
KBM(교수) PBS(교수)	2012.09.12. 2012.09.12.	종교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전자메일 자문

집담회 및 자문의 주요내용은 종교교육성격,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교원교육, 종단의

지원, 사회적 지지, 교과서 등에 관련되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종교교육은 매우 제약을 받아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집담회 및 자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종교교과를 운용할 때 대체과목이나 복수편성으로 학생의 선택권 보장은 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종교교과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철학, 심리학 등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편성 운영한다 할지라도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 종교교과교육을 종교교양 또는 종교학적 종교교육 모형으로 가는 것은 종립학교 정체성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 종립학교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종교교과교육 외에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할 여지는 있다.
-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교교육은 창체활동 또는 범교과군으로 응용될 여지가 많다. 이는 반드시 특정한 종교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운영될 필요는 있다.
- 중학교에서는 창체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준비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매우 제한적 적용에 지나지 않는다.
- 다종교문화의 이해교육,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
- 종립학교에서 좋은 창체활동 프로그램이나 잠재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
- 다종교문화 이해를 위해 종립학교 교사가 다른 종립학교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활동에 교차 순회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 범종단의 종교 교과서 개발 기구를 설립하여 공통된 교과서 내용만이라고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종립학교 교원의 현직연수 기회가 현재 보다 더 주어질 필요가 있다.
- 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정규 관련 교과(역사, 사회 등)에서 또는 창체활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공모제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 시범학교, 연구학교 지정과 아울러 포상제가 필요하다.
-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종교차별예방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학생들에게는 “다종교문화이해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롤 모델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종교교육의 정체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직 관련 교사의 롤 모델, 학교의 상징물, 역사, 심리적 환경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종교교양양이 제기될 필요는 있다.
- 시민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 종교차별예방교육”을 롤 모델로 관련 부처 간에 협력을 얻어 단계별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를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Ⅲ. 종교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1. 종교교양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

이상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 분석, 질문지 조사를 통한 현장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수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교교양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현행 국가 수준의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에서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의 범주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과 수업활동으로써 종교교육은 “종교학” 교육과정에 따라 “종교교양교육”으로 지향한다.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활동 중 창체활동에서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밖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종교교육은 공식적 교육과정(교과, 창체활동)보다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교』 교과서 개발은 종교교양교육으로 진행되는 기본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의 하위영역 중 해당 종교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동집필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교원의 양성과정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며,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실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종교교사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물론 교원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종교교원의 현직교육은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현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은 관련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 사례 발굴 및 확산 보급을 목적으로 한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일반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시민강좌로 개발·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종교교육의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교원입장에서, 종단과 학교입장에서, 정부입장에서 각각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내 공교육에서 종교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에 입각한 각 주체별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각 주체별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 주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각급 학교	1)종교교육에 적합한 학교 환경 인프라(인적, 물적 기반) 구축 2)현직교원연수 교육에서 종교교육의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3)활용 가능한 최적의 교과서 개발에 참여 4)학교 현장에서 정규 및 비정규 종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을 목적인 공모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 종단	1)종교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제 구축 2)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3)종교교사 및 관련 교원교육에 대한 지원 4)종교 관련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부 및 유관기관	1)종교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2)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3)범 정부 간 연대 및 협력 체제구축으로 시민강화를 개발 운영함. 4)각급 기관, 학교에 종교교양교육 보급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종교교양교육은 활성화 실행방안의 내용인 하위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교육 프로그램과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각각 나뉘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규교육 프로그램으로 ①보편적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 ②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종교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보편적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010년 11월 12월 서울지역 중고교생 1,0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전파하는 교육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36.6%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상관없다.”(19.5%)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의 절반이었다.⁴⁾ 공교육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비판적 성찰능력을 키워 학생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면 학내 종교교육도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⁵⁾ 한국사회가 이미 다종교문화사회에 진입해 있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의 입시제도,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의 제반 여건 뿐만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논리 이른바 교육과 선교의 분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교양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종

4) 윤남진, 「청소년 종교인 포럼」, 2011년 7월 18일.

5) 「법보신문」, 2011년 7월 19일.

교교육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1년 국가수준의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정규 교양교과로써 현존하는 “종교학”교육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i)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ii)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iii)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요약하면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종교를 통한 사회문화 맥락에서 존재하는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인격배양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교양교육으로써 종교학의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하위 실행 방안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수준 및 지자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포상 등의 정적 강화와 징계 등의 부적강화를 적용한다.
- ② 타종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③ 이웃종교의 이해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순환적 초빙제를 실시한다.
- ④ 다종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종교교육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활동들로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대별된다.⁶⁾ 범교과 학습주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개발 가능한 주제를 제시하면 예시와 같다.

〈표 14〉 범 교과 학습주제 예시

(범교과 예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경제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청렴 범부패교육, 물보호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인구교육, 안전 재해 대비교육, 저출산교육 고령화 사회대비교육, 여가활용교육, 호국보훈교육, 효도 경로 전통윤리교육, 아동청소년 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재산권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 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한국문화사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26]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예1] “다종교사회의 이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다종교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함양하는 방안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양과목으로써 종교학의 하위 목표인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이미 개발 운영된 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양하다. 예컨대 문체부의 “종교문화 지원사업”(종교청소년문화축제, 종교문화유적 지대화순례) 등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공모(공고제2012-47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 다문화이해강사양성 및 다문화교육 사업 중앙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도 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유관 기관간 연대를 하여 실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구성될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문화이해 측면에서 종교는 중요한 삶의 방식 중의 하나이다.
- [예2] 교사 교차 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예3] 종교차별예방교육의 실행 - 종교성적지 답사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문화이해 아카데미(www.youthacademy.or.kr: 전문체험활동과정 영역 - 세계시민, 인성 및 기타 영역)
- [예4] 종교문화체험교육활동
- [예5]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 이러한 접근방법이 즉, 종교교육을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조차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부록 예 참조)
- [예6] 교과별 및 유관교과 관련 프로그램: 중학교 사회과, 역사를 염두에 두고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평화, 도덕, 애국심,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 사례도 있다.⁷⁾
교과서 공동 집필, 해당 종교교양 관련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 [예7] 종교교양교육의 공모 및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 지정 운영 프로그램
- [예8] 창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종교활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요구된다.

3.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종교교양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지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

7) 平野久美子, 『教師に問われる宗教教育とは何か』, 東京: 明治圖書, 2010, 8쪽.

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을 세운 바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따라서 숨은 교육과정, 구조화되지 않은 교육과정, 계획되지 않은 교육과정, 비공식적 교육과정, 내현적 교육과정, 비기시적 교육과정, 조직되지 않은 교육과정, 기대되지 않은 교육과정 비형식적 교육과정 등과 같은 의미로 불려진다.

이 교육과정은 주로 학생들의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의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주며 학교의 문화풍토, 교사의 인격적 감화 등을 중시한다. 문화풍토 속에는 유형무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들이 항상 긍정적 기대효과만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 부정적 영향도 공존함을 유의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염두에 둔 종교교양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역사관 만들기, 종교적 형상물 세우기, 교내 종교를 바탕으로 한 명언명귀 세우기, 학교를 빛낸 얼굴 알아보기 등”을 들 수 있다.

4. 정부 및 유관기관의 종교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종교교양교육을 시행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종교교양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정부의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첫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종교학’의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종교학’이라는 학문적 성격에 걸맞게 선정 조직되어야 하지만 중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쉽고 실제 생활에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목적체계,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 분야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법규, 교과서, 교원, 학교의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 법규의 재정비(교육과정, 학생인권조례, 인증도서 개발, 교원양성 등)
- 『종교학』 교과서 개발의 절차 및 인증제도의 강화
- 종교 교과 교육과정 운영 종합 지침 개발(교사용)
- 유관 교과의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유기적 관계 정립
- 종교과 교원양성 기관의 평가 및 인증 시스템 도입
- 종교과 교원의 현직연수체제 강화(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체제 도입)
- 공모제를 통한 종교 교과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종교 교과 교육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

둘째, 정부가 주관하여 유관 기관⁸⁾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교교양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범종단 차원에서 종교교양교육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다종교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다종교문화의 이해’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직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종교교양교육’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국공립·사립학교에서 ‘종교교양교육 선도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양교육 우수 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함과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강좌’에 다양한 종교교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종교학 교과교육 운영시에 이웃종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력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종교교양교육의 실제 운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종교교양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현직 종교교사, 종교교육 관련 전문가 등을 인력풀로 활용하여 종교교양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중등학교에 교양강좌는 물론이요 입시 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양교육은 현행 ‘종교차별예방교육’을 롤 모델로 하여 일반시민(지자체 공직자, 주부,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나 ‘인문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는 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인력을 유관 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종교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와 종교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선 질문지 조사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학교의 종교교육 참여도에서 종교수업의 참여도는 대체로 낮은 반면 종교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높았다. 그리고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강제참여 방식, 종교 간의 차이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종교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강요가 싫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교육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종교 수업이나 활동의 다양화, 유익성 제고, 선택권 보장” 등으로 반응했다.

8)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종교통단체, 한국종교교육학회, 시도교육청, 연구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종교교육은 많은 제약을 받아 실현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과교육을 종교교양 또는 종교학적 종교교육 모형으로 가는 것은 종립학교 정체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립학교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종교교과교육 외에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인성교육·전인교육 등과 같은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창체활동 또는 범교과군으로 응용할 여지는 많다. 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정규 관련 교과(역사, 사회 등)에서 또는 창체활동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창체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등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종교문화의 이해교육 차원에서 종립학교 교사가 다른 종립학교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활동에 교차 순회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도 필요하다.

더불어 범종단의 『종교』 교과서개발기구를 설립하여 공통된 교과서 내용만이라도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립학교 교원의 현직연수 기회가 현재보다 더 주어질 필요가 있다.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사립을 막론하고 공모제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 시범학교, 연구학교 지정과 아울러 포상제도 시행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종교차별예방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학생들과 일반사회 시민을 대상으로는 “다종교문화이해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롤 모델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종교교육의 정체성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연구 및 자문 결과에 의하면 종교교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성교육 및 창체 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선택폭의 개방, 시청각 매체의 접근 활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종단, 학교, 교사, 학부모의 적절한 참여와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양교육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각급 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양교육 및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접근될 수 있다. 아울러 종교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여러 방안들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칭 ‘종교교양교육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별책19),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⑭ 교양』
교육과학기술부, 200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고등학교 교양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1.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고병철, 『한국중등학교의 종교 교과교육론』 박문사, 2012.
- _____, 「중등학교 종교 교과의 교수-학습 방식」, 『교육연구』43,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2008.
- _____, 「한국 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21,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고시용, 「원불교 종립학교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22,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_____, 「다문화사회와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36,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유사통합-종교연수교재』, 2011, 공주대학교.
-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28, 한국종교학회, 2002.
- _____, 「학교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대순사상논총』18, 대순사상학술원, 2004.
- _____,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방안」, 『종교교육학연구』27, 2008.
- _____, 「한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3, 종교교육학회, 1997.
- _____,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문음사, 2010.
- _____, 「광복 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전개와 쟁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5, 원광
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0.
- _____,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정보』30,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 김영원,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자유」, 인제대학교, 『인제법학』2권, 2011.
- 김용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
- 김유한,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김중서, 「한국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학연구』20,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1.
- 김철주 · 고병철, 「종교교사 양성 및 연구프로그램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21-2, 한국교원
교육학회, 2004.
- 류성민, 「한·미·일 삼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비교」, 『종교교육 비교연구』, 한국학중앙
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 _____, 「근대 이후 한국 사회변동과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문
제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 _____,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연구소, 1994.
- 문정일,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13, 2010.
- _____, 「외국(영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 사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12.
-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 _____, 『외국(영·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손원영, 「제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송기춘,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민주법학』 37, 관학사, 2008.
- _____, 「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평준화지역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33-1, 2004.
- 신광철, 「한국 종교교과서 인정제도의 변화와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교육학연구』37,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_____,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30,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27,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이찬수 외, 『국내외 종교간 화합사례와 효과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임지봉,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서울 고등법원의 강의석군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14-4, 2008.
- 전영배,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 정형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31, 2010.
- 조영관,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경향잡지』3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 최준규, 「한국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쟁점」, 『교육법학연구』17-2, 한국교육법학회, 2005.
- 한국종교학회, 『한국 종교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1. 3.
- 平野久美子, 『教師に問われる宗教教育とは何か』, 東京: 明治圖書, 2010.

원고접수 : 2013년 1월 7일 / 1차 심사: 2월 4일 / 게재승인일: 2월 8일

연구자소개 : 김귀성

- ① 전공: 교육철학 및 교육사 / 소속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동아시아비교교육, 한국교육철학, 지역교육(중국교육사)
- ③ 주요논저 : 『현대교육사상』,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등
- ④ E-mail : gskim@wku.ac.kr

연구자소개 : 류성민

-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 종교이론, 종교교육, 종교의례, 중국종교
- ③ 주요논저 : 『종교와 인간: 종교를 통한 인간이해』, 『성스러움과 폭력』, 『의례의 이해』, 『중국 운남 기독교사』 등
- ④ E-mail : sungmin@hs.ac.kr

연구자소개 : 고시용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조교수
 -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한국종교, 원불교교육, 원불교경전해석
 - ③ 주요논저 : 『클릭 원불교』, 『종교(원불교)』, 『한국 종교의 확산전략』, 『원불교 교리 성립사』 등
 - ④ E-mail : kwgksy@wku.ac.kr
-

Abstract

Religious General Education Activation Plan

Kim, Guisung · Ryu, Sungmin ·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 Hanshin University · Wonkwa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preliminary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possible measures to implement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The target audience of this research totaled 1,048 (793 students, 255 instructors) and questionnaires were implemented as well as 11 researchers related to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the preliminary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results were established on how to revitalize religious general education. First, in cases where religious general education in schools have an inadequate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 it is not only difficult to manage and open a regular curriculum, but also in term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schools established by religions, there is a limit on choices for students over irregular activities such as religious observances. Second, not only doe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extbooks related to religious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need to be considered, but in terms of management, there also needs to be a restructuring and improvement in showing its actual utilization. Third, althoug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ppropriate legal regulatory constraints relevant to religious education, this enforcement is rather insignificant when applied on site. Therefore, effort needs to be made to bridge the gap between actuality and the setting up of legal regulatory constraints. Fourth,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results and research, consideration needs to be paid to access to the diversification, open selection, media of programs related to creative experience and character education through revitalizing religious general education. Fifth, In order to revitalize religious general education appropriat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from the nation, local government, religious order, school, instructor, parents of students is required. Finally,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general education) from the level of civic education i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liberal arts education, and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continuing education at all levels of the institution is possible.

Key words :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General Education, Civic Education